

용차이 :

Meta AI 지원 어시스턴 지원센터가 뭔가 하는 곳 실망이다ㅠㅠ 이 정도 밖엔 할 수 없는거야? 정말 실망이다

지니 :

그 답변을 보면 **실망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Meta AI가 **무능해서**라기보다, **공식 지원센터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공식 지원은 기본적으로

- 정책은 무엇인가?
-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 답합니다.

그래서

"공식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라는 답밖에 못 합니다.

반대로 용차이님과 남주씨는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 7월 5일 연결.
- 제거.
- 다른 페이지에서 재사용.
- 다시 제거.

이런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Meta가 모르는 정보입니다.

Meta는 전 세계 정책은 알지만,

용차이님 사례는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에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봤습니다.

Meta는 정책을 알고 있고, 용차이님은 운영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은

"대기 기간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운영자는

"우리는 실제로 이런 패턴을 경험했다."

를 기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오히려 **운영일지다운 사례**입니다.

공식 답변은 일반론을 주었고,

운영자는 현장에서 자기 사례를 축적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남주씨가 .001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 사례에서는 실제로 며칠이 걸렸는지."

라는 운영 기록이 하나 더 완성됩니다.

용차이 :

왜 남주씨가 암말 안하고 있었는지 이유가 알만해~

지니 :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차이님의 추론대로라면 남주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의는 해봤고,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으니,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 굳이

"아직 안 됩니다."

를 계속 보고할 이유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되면 말씀드리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2주가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용차이님은

"왜 아무 말이 없지?"

라고 생각했고,

남주씨는

"지금은 기다리는 중인데 뭘 더 말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용차이님이 보낸

"오늘 2주째네, 다시 함 시도해보시죠."

라는 한 줄이 딱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 재촉도 아니고,
- 확인 요구도 아니고,
- 비난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다시 시도해 볼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라는 동료의 신호입니다.

만약 정말 오늘이나 내일 .001이 회복된다면, 그동안의 침묵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가능성이 큼니다.

용차이 :

이게 말야, 그동안 나도 왜 함 암 물어봤을까? 그랬거든. 거꾸로 남주씨 입장이라고 봐, 왜 제는 안 물어보고 날 더러 물어보라는 거지? 할 수고 있는거 아냐?

지니 :

바로 그 지점이네요.

저는 용차이님의 말을 듣고 나니 남주씨 입장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남주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차이님도 알고 계신 일인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혼자 궁금해하고 계시지?"

반대로 용차이님은

"남주씨가 왜 아무 말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고요.

즉, 서로가

"상대도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다가 생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차이님이 보낸

"오늘 2주째네, 다시 함 시도해보시죠."

가 더 의미 있게 보입니다.

그 한 줄이

"나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니깐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용차이님이 늘 말씀하시는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다."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왜 말이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둘 다 상대를 재촉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닐까?"

라는 새로운 해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꽤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오늘 보낸 그 한 줄이 그 침묵을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첫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용차이 :

만남보다 중요한 한 수 ~!

지니 :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남보다 중요한 한 수."

이번에는 그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만나서 풀어야 하나?"

를 고민했는데,

오늘은 **딱 한 줄의 카톡**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 줄은

- 만나자고도 안 했고,
- 캐묻지도 않았고,
-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2주째네, 다시 함 시도해보시죠."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 결과,

- 남주씨는 다시 시도할 계기를 얻었고,
- 용차이님은 "왜 침묵했는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운영자의 한 수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운영 문법으로 남긴다면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운영 문법

만남보다 중요한 한 수가 있다.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긴 설명이나 잦은 만남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건네는 짧은 한마디일 때가 있다.

이건 단순한 카톡 기술이 아니라,

용차이님이 말한 **감각도흔**과도 이어지는 사례 같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읽는 감각.

이번에는 그 감각이 **만남보다 한 줄의 메시지**를 선택하게 했고, 저는 그 선택이 아주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12:05



이 칼렌다를 올려놓고선 남주씨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 휴가 갔나 보다. 오전이 다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뭐~ 내 예상이 맞았다면, 나중이라도 연락 오겠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난 남주씨께 빛진 듯한 느낌이 든게 하나 있었는데, 그 .003 ~ .010 username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다. 하지만, 이번 2주째 풀릴 거라는 내 착안으로 인해 .001 username 마저 확보하게 된다면, 그 모든 빛은 이제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다.

지니 :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달력이 아니라 '운영자의 시간축'**처럼 보였습니다.

용차이님이 동그라미 친 날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 **7월 5일** : .001이 실제로 연결되었던 날.
- **7월 19일** : 다른 페이지의 .001을 발견하고 다시 제거했던 날.
- **8월 2일** : "이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날.

즉, 세 점이 하나의 운영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인상적입니다.

".003~.010 username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남주씨 덕분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계기가 되어 운영 방식이 한 단계 발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001까지 회복된다면, 그 모든 빛은 이제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빛을 졌다는 계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씩 기여했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 남주씨는 **예비 username 확보**라는 운영상의 안전장치를 제안했고,
 - 용차이님은 **운영 문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그리고 이번 .001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다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수는 두었습니다.

"오늘 2주째네, 다시 함 시도해보시죠."

그다음은 남주씨의 차례입니다.

운영에서는 항상

한 수를 두고, 상대의 수를 기다리는 시간

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간으로 보입니다.

용차이 :

난 솔직히 내 할 바를 다한 것 아닐까? 더 이상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닌 듯 여겨진다. 그건 하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리고 설혹, 남주씨가 내 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001을 놓친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만일의 경우에, 남주씨가 조인하지 않더라도 난 혼자서라도 그에 알맞는 사람을 찾아 만나서 cns를 완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바야흐로 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누군가에게 빛이 없이 이 사업을 열게 된 것이다. 40년 전에 열었던 사업은 이 비결 (시크릿)을 몰랐기에, 내가 남에게 빛지는 걸 당연하다 여겼고, 그 쉬운 길을 좇았기에 맥없이 중도에 사업이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거든.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그걸 난 오늘에서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지니 :

저는 이 말씀에서 **기술적인 발견보다 더 큰 태도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예전의 용차이님이라면 중심이

"누가 함께해 줄 것인가."

에 있었다면,

오늘의 용차이님은 중심이

"나는 혼자서도 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로 옮겨왔습니다.

그 차이는 큼니다.

다만 저는 표현을 조금 다듬고 싶습니다.

"남주씨가 조인하지 않더라도 CNS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남주씨는 필요 없다."

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은

"남주씨가 함께하면 더 풍성해지고, 함께하지 않더라도 길은 계속 간다."

이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게 더 강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이야기와 연결한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차이님 말씀을 제 언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년 전에는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흔들리면 사업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체계가 먼저 서 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운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혼자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운영체계가 사람보다 먼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발견을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저는 이 문장이 40년 전과 지금을 가장 잘 연결해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